

욥과 그의 딸들

Hans-Jörg Ronsdorf · 2021년 4월 · 2026년 10월 개정

욥기에 관한 연속 강연을 통해 저는 욥의 딸들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한 매혹적인 책에 나오는 작은 세부 사항일 뿐입니다.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인상 깊은 문학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읽기 쉽지 않고, 성경의 책으로서로는 꽤 깁니다. 이 책을 한 번에 읽어 내는 사람은 머리와 마음과 영혼에 밀려오는 쓰나미를 경험합니다.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의롭고 흠 없는 욥과 그의 가족이 왜 그런 부당한 고난과 운명을 겪어야 하느냐는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큰 물음이며, 욥기는 지혜 문학의 형태로 이 물음에 도움이 되는 기여를 합니다. 욥기도 마지막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답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논증하려 했던 것처럼, "의인은 복을 받고 불의한 자는 벌을 받는다"고 단순히 못 박는 응보 신학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세상의 고난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제 주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작은 세부 사항, 하나의 "부산물"을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책에서도, 그 뒤에 쓴 글들에서도 구약성경의 여성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
다. 구약성경에는 선지자, 왕, 사사, 지도자였던 여성들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여선지자인 미리암, 드보라, 홀다, 사사인 드보라, 왕비인 에스더). 정상적인 일로서가 아니라 예외로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역할 모델이라고 결론짓는 사람은, 남자는 이끌고 여자는 따라야 한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근거를 들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 자체는 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위계적 불균형은 타락의 결과이며, 모든 시대의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회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위계는 타락 이전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야 나타납니다.**

욥과 그의 대가족은 언제 살았는가?

유대 전통은 욥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시대에 살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들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욥의 삶과 도전과 시험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율법에 따른 제사 제도가 있기 전에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이들의 이 땅의 조상이 됩니다. 우스 땅의 욥은 히브리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또는 어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의

마지막 장들에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심지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기 42:5)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내적 치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요르단 지역, 곧 정착지와 광야가 섞인 지역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래이거나 심지어 더러운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근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욥이,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닐지 몰라도, 욥에 대해서는 사탄이 틀렸습니다. 이 증명을 위해 치른 대가는 큼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욥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결말입니다. 고난받는 많은 사람이 이 삶과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욥은 모든 것을 갑절로 돌려받습니다. 사탄이 그에게서 빼앗은 것을 그는 두 배로 돌려받습니다. 그는 자녀 열 명을 잃었고, 고난이 끝난 뒤에 자녀 열 명을 얻습니다.

욥기 42:13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14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 곧 산비둘기라 하였고 둘째 딸은 겿시아, 곧 계피꽃이라 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 곧 작은 화장 뿔통이라 하였으며

15 온 땅에서 욥의 딸들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오라비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었더라.

구약성경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만한 이 세 딸에 대한 특별한 강조는 욥의 운명이 뒤바뀌었음을 보여 줍니다. 딸들에 대한 이 강조가 특별하고 이례적인 만큼, 욥의 운명의 반전도 유일무이합니다.

무엇이 특이한가?

가부장제의 시대, 곧 여성이 재화나 물건처럼 소유물이요 재산이던 시대에 두 가지가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 1. 아들들이 아니라 세 딸만 이름이 나옵니다.**
- 2. 딸들이 그들의 오라비들과 똑같이 유산을 받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고, 오라비들을 우대하지 않고 유산을 나누어 준 사람은 욥 자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욥이 딸들을 크게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거슬러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단서 정도입니다. 고난이 여성에 대한 욥의 시각을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그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자기 시대의 자녀였습니다. 그도 우리도 우리가 사는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의 여성관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16에서 하와에게 내린 형벌의 말씀에 상응했습니다. “너는 그(네 남편)를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저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관계가, 그리고 그 반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에 견주어 볼 때 가능한 모든 면에서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늘 말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예외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규칙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가부장제는 자기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대륙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세속적인 가족 및 씨족 구조이며, 보수적인 복음주의 세계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욥은 아들들이 아니라 딸들에게서 특별한 무엇을 봅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좋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고난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겪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반응이 분노와 실망이라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거쳐 정련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아내를 비롯한 이웃들과도 화해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별 문제에 대해 가진 견해는, 여성의 위계적 복종, 그리고 예배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영역이 여성의 성경적인 활동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이 견해는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 또는 지도자들 사이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이 세속적인 견해를 버리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분의 시각을 받아들이려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 각 사람에게 욥과 같은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을 바꾸는 데에는 공식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문제이며,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위해 일어서고, 그에 맞게 행동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아름답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딸은 눈에 띄는 미인들이었고, 욥에게는 거의 세 천사와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보호하고 누리며 그 여인에게 신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욥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욥기 31:1).

이름들

세 딸의 이름은 우리 귀에는 낯설지만, 구약성경에서 흔히 그렇듯이 뜻이 깊습니다. 베네딕트 페터스(Benedikt Peters)는 자신의 욥기 주석에서 그 이름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그가 첫째를 ... 라 하였고’**: 우리는 욥의 딸들의 이름만 알게 된다. 첫째의 이름은 **여미마**, jəmîmâh로, jôm ‘날’에서 왔으니 대략 **‘낮처럼 밝은 여인’**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대략 그리스 여성

이름 헬레네, 곧 '밝게 빛나는 여인'에 해당한다. 고난의 밤이 지나고 이제 욥에게 번영의 밝은 날이 밝아 왔다. 아랍어 어근에 따르면 이 이름은 '비둘기'를 뜻할 수도 있다.

둘째의 이름은 **긱시아**, qəṣîṣâh로, 향기로운 향료인 계피(카시아)이다(출 30:24; 시 45:8). 게렌합북, qæræn happûk은 여성들의 검은 눈 화장품인 안티몬 가루를 담아 두던 뿔통이다."¹

"그가 회복한 번영을 가리키는 세 이름(창 4:25; 5:29).

여미마 – '햇빛', 그가 겪은 비참함의 '밤' 뒤에 온 것; 마우러(Maurer)는 이와 달리 '비둘기'로 봄.

긱시아 – '계피(카시아)', 향기 나는 풀(시 45:8), 그의 역겨운 입김(19:17)과 종기 대신에.

게렌합북 – '안티몬 뿔', 여성들이 눈꺼풀을 물들이던 염료; '티끌에 더럽혀진 그의 뿔'(욥 16:15)과 대조됨 [Neues Leben(독일어 성경 번역본): '내 자존심과 내 명예가 진창에 뒹굴고 있다.']

이 이름들은 또한 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가리킨다."²

유산

"15절. '오라비들 가운데서 ... 유산을' – 동방에서는 딸들에게 흔치 않은 호의였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딸들은 아들이 없을 때에만 유산을 받았다(민 27:8). 이것은 번영과 화목의 증거다."³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오라비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었다. 욥의 이 행동은 모세 율법의 규정(민 27:8)에 엄격히 어긋나며, 오히려 특유한 히브리인의 관습보다는 아랍인들의 어떤 가족 관습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있다. 이 행동은 딸들이 결혼한 뒤에도 계속 오라비들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욥의 앞서 난 자녀들 사이에서처럼(1:4 참조) 이 나중 자녀들 사이에도 형제자매의 화목이 있었다는 표시로 언급된다."**⁴

베네딕트 페터스는 자신의 욥기 주석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거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 보여 주신다. 욥의 회복은 분명 시대의 끝에 있을 만물의 회복을 미리 보여 주는 보증이다. 그때에 여성들도 마침내 그 지위로 높여질 것이고,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존귀, 그러나 남자들이 그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귀가 마침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남편들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7).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에게 상속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귀를 돌려야 한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오라비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었기 때문이다(민 27:7 참조)."⁵

베드로는 남성이 지배하던 자기 시대에, 믿는 남성들에게조차 이제는 여자들도 똑같이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오라비가 없을 때에만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없습니다(갈라디아서 3:28). 그러니 베네딕트 페터스도 여성들을 그가 보기에 그들에게 마땅한 지위로 어느 정도만 높일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간다면 복된 일일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지우고, 말하는 것(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과 이끄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세상의 표시이지, 새 창조의 표시가 아닙니다. 새 창조는 앞으로 비로소 오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인 교회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에베소서 2:15).

욥의 딸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등대처럼 무리 가운데서 우뚝 드러나며, 이미 고대에 여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오라비들과 얼마나 동등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표지였습니다. 그때도 그러했다면, 오늘은 더욱 그러합니다.

주

1. Benedikt Peters, Kommentar zum Buch Hiob (독일어), Bielefeld: CLV 2020, 412쪽.
2. Jamieson, R. / Fausset, A. R. / Brown, D.,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I, Logos Research Systems, Inc., Oak Harbor, WA 1997, 344.
3. Jamieson, R. / Fausset, A. R. / Brown, D.,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Whole Bible, I, Logos Research Systems, Inc., Oak Harbor, WA 1997, 344.
4. Lange, J. P. / Schaff, P. / Lewis, T. / Zöckler, O. / Evans, L. J., A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Job, Logos Bible Software, Bellingham, WA 2008, 631.
5. Peters, Kommentar zum Buch Hiob, 412쪽.